사·부·대·중

사찰순례 가기가 겁난다

이귀인
한국석물선양회 회장

재가불자들은 사찰순례(성지순례)길에 자주 오른다.

새벽잠을 설치며 대절버스에 몸을 싣고 또 한참을 걸어올라 사찰의 일주문이 시야에 들어오면 여독(旅毒)은 씻은 듯 가셔지고 경건함과 환희심 가득한 마음으로 두손 모아 반배의 예를 올린 후 사찰 경내로 들어선다. 법당 및 전각을 순서대로 참배하기 위해 우선 본존불이 모셔진 큰법당으로 들어가면 노보살이 사인펜과 불사카드를 내밀며 참배객의 옷자락을 잡는다. 참배를 마친 후 법당 마당에 나와 주위의 경관을 둘러볼 양이면 이제는 마당에 천막을 치고 앉아 있는 젊은 보살이 쫓아 와 기와불사를 권한다.

금년에 다녀온 많은 사찰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불사를 하지 않는 사찰은 거의 없었다. 불사의 종류도 각양각색이었고, 심지어 어느 사찰은 전각별로 불사 시주를 권유하고 있었다. 정말 피곤하다. 새벽의 설레였던 마음, 경건하고 환희심 났던 마음은 사라지고 어서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성능이 좋지 않은 확성기를 통해 크게 내뿜는 독경이나 염불테이프 소리는 산사의 일등 공해(?)가 아닐 수 없다.

8월 초 50여명이 어느 사찰로 순례를 갔을 때 일이다. 그곳의 주지스님이 불사 동참을 간곡히 권하였다. 우리 단체의 70% 정도가 기꺼이 동참하였기에 흡족한 마음으로 불사카드와 함께 보시금을 그 사찰 종무원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그 종무원 하는 말이, "몇 명이 왔는데 이거 밖에 안돼요?" 한다. 마침 기온이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터라 그 종무원에게 시원한 물을 부탁했지만 냉장고에 물이 없다고 한다. 불자들의 정성을 머릿수로 계산하는 얄팍함과 여름철 땀범벅이 되어 찾아온 불자들에게 시원한 물 한 그릇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지 못하는 그 사찰의 짧은 안목과 인색함이 왠지 측은했다. 이런 수모를 겪지만 언제 그랬냐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다음 번 사찰순례를 의논하는 우리는 정말 미련한 곰들 일까.

목탁소리

가사불사의 의미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조계사가 가사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지은 가사를 올해 10월말에 치러지는 조계종 3급 승가고시 이수자에게 봉헌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원도 조계사와 함께 이번 가사불사를 계기로 의제 통일화 작업을 본격화할 태세다.

사실 조계종의 의제 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개혁종단이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됐고, 비구(니) 사미(니)의 승복과 가사를 차별화하고 또 단계별로 법계에 따라 가사의 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96년 의제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조계사와 교육원은 우선 가사부터 통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누구나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있게 돼 있다보니 승가 위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승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승복과 가사를 구입해 사이비 승려 노릇을 하며, 사기행각을 일삼거나 부녀자를 농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스님들이 가사를 마련하는 방법은 승복집에서 사거나 신도들로부터 보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수행을 상징하는 가사의 본래 의미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색깔도 틀리고 변용이 심해 가사의 '위의'가 사라진 지 오래다.

가사의 위의를 되찾겠다고 나선 조계사의 뜻은 반가운 일이다. 교육원에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승복을 관장하는 가사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종단차원에서 승복유통을 관장하고 가사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법한 의제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타태아기령 천도재 '확산'

부모 원망하며 떠도는 아기영가 '해원'

"액체의 태아에 해당하는 '갈자람'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태아를 타태(墮胎)케 하면 중대한 살생죄를 범한 것이다." <유가논기>

9월 2일(음력 7월 15일)은 일년에 한번 지옥문이 열린다고 하는 우란분절이다. 우란분절을 맞아 선망부모와 조상의 영혼을 천도하는 우란분재가 사찰마다 열리고 있는 가운데 타태아기령 천도재를 봉행하는 사찰도 늘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신흥사, 정토사, 한강 광나루 수상법당, 법성사, 사천왕사, 방생선원, 관음의 집과 함께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상계동 사천왕사에서 제6회 타태아기령 천도사경 연합법회 입재식을 갖는 등 최근 많은 사찰에서 타태아기령 천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루 6,000여명, 연간 200여만명의 태아가 무분별한 낙태수술로 생명을 잃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불교계가 더 이상 낙태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생명존중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마리아수녀회를 중심으로 한 천주교와 개신교가 중심이 된 낙태반대운동연합, 생명을 아끼는 모임, 새생명사랑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낙태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정작 불살생계를 중시하는 불교계에서는 아직 이러한 움직임이 미미한 상황이다. 불교계가 반낙태 생명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우란분절을 맞아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실시한 타태아기령 천도사경법회 회향식에서 낙태 경험이 있는 불자들이 꽃과 사경문, 영가위패 등을 들고 법당을 돌며 영가천도를 기원하고 있다.

매년 태아 2백만명 '생명 잃어'
태아도 인격체…"낙태는 살생"

"생명중심 성교육 등 대안찾자"
"범종교 낙태반대운동 나설때"

●낙태율 세계 1위 한국

성개방 풍조로 어린 미혼모들이 나날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낙태율 세계 1위'란 불명예를 가진 한국 땅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20초에 한 명씩 소중한 생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천부적인 인간의 생명권을 강조하면서도 이런 정신에 반하는 낙태문제가 한국사회의 전면에 부각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무지함 △개인 편리주의 △도덕적책임의 사회전가로 죄의식의 감퇴 △남아선호사상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허용기준 완화(실제적인 법적 보장) △낮은 산부인과 의료수가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불교의 태아관

불교의 생명관에 의하면 태아는 어머니 태안에 물방울의 형태로 태어날 때부터 인격체로 간주된다. 소승불교에서는 중생들의 윤회 과정을 중유(中有), 생유(生有), 본유(本有), 사유(死有)의 네 가지로 나눈 사유(四有)학설로 설명한다.

중유(中有)는 전생에 어떤 중생이 죽은 뒤로부터 다음의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명체를 뜻한다. 생유(生有)는 전생의 영혼이 금생의 부모를 만나 태안에 출생한 것을, 본유(本有)는 영혼이 모태에 탁생한 뒤부터 수명을 다하여 죽는 순간까지의 생존기간을, 사유(死有)는 인간이 살다가 사망하는 찰나를 말한다.

또한 태아의 성장 과정은 팔위설(八位說)과 오위설(五位說)로 설명된다. 이는 태아가 모태에서 자라는 동안에 오장육부와 눈, 코, 귀, 입 등 인간의 형체를 갖추어 태어나기까지의 기간을 다섯 또는 여덟로 나눈 것이다. 여기에는 태아를 인격체로 간주하는 사상이 담겨져 있다.

불교는 이웃 종교와 달리 태아에 대한 많은 경전을 갖고 있다. <증일아함경>에는 수태의 과정과 태아의 성장과정이 매우 상세히 기록돼 있다. <불설포태경>에도 태아의 발달과정과 윤회에 의한 과보의 적용과정 등이 설해져 있으며 <근본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다.

<아귀응보경> <타태경>에서는 백천세 동안 고통을 받는 무서운 타태(墮胎)의 과보를 강조하고 있다.

●낙태영가를 천도하는 이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낙태의 중죄를 지었더라도<장수멸죄 호제동자다라니>에서 설한 바와 같이 "태아를 죽인 죄를 지었더라도 참회하고 천도공양하면 죄업이 소멸되고 이고득락(離苦得樂)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장 성덕스님은 타애아기영가의 해원(解寃) 천도법회를 봉행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모로써 씻을 수 없는 살생죄업을 참회해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원한 맺힌 아기영가들을 해탈시켜 이고득락케 하며,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에서 벗어나게 한다. 또한 불보살님들의 큰 서원에 의탁해 영계와 현실계의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 고통의 원인을 모두 없애고 가정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게 된다."

●대안있는 낙태반대운동

불교적인 낙태반대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낙태에 대한 교리적 입장을 정립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설득력을 갖는 대안있는 생명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찰이 낙태한 부모들에게 상담을 통한 참회를 유도하고 천도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죽어가는 생명들이 없어지도록 기도하며, 포교활동의 하나로 낙태반대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사회적으로는 불교계가 나서서 생명중심의 성교육과 태교교육, 미혼모를 위한 입양 예약제 활성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종교간의 연대와 대사회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국회, 정부, 언론 등에 끊임없는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 특히 낙태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바른 의식을 갖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스님들이 교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낙태 반대운동 나선 스님들

◇성우 스님

◇자우 스님

◇성덕 스님

천주교, 개신교계가 활발한 낙태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 불교계는 아직 소극적인 타태아기령 천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몇몇 스님들은 각종 법회와 태교교육 등을 통해 살생중죄인 낙태의 불교적 의미를 일깨우고 있다.

<하늘 맑은 날>(토방 펴냄)들 태교시집을 잇달아 출간한 대구 파계사 주지 성우스님은 84년 홍콩 홍법원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인연과보의 엄중함을 불자들에게 일깨우고자 매년 태령영가 천도를 시작, 파계사에서 청소년~주부를 대상으로 태교강연을 계속하고 있다.

금강사 주지 자우스님은 매년 태아영가 천도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95년 낙태의 부도덕성에 경종을 울리고, 낙태에 의해 사라져간 영혼들에 대한 사죄와 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밀알 펴냄)란 책을 발간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장 성덕스님은 10년전부터 타태아기령 천도사경법회를 열면서 '타태아기령 생명수호 결의문'을 채택하는등 낙태반대운동을 펼치며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태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담사 주지 지율스님은 10년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아영가 천도도량으로 문을 열어 매년 세차례이상 태아영가 49재 천도재를 지내, 이제까지 구담사에서 태아영가 천도재를 봉행한 신도는 모두 1,000여명에 달한다. 김재경 기자

중량 3,300관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